

진안 인삼 · 홍삼 해외시장 개척 나서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바티칸 소속 실베스트리니 베네딕도 수도원과 상품 개발 합의

국내 유일의 홍삼 특구 진안군이 '인삼·홍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마련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28일 전춘성 진안군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25일~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실베스트리니 베네딕도 수도원과 로마 교황청 바티칸을 방문해 진안홍삼 공동 상품 연구개발 및 홍삼 제품 입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베스트리니 베네딕도 수도원은 성 실베스터 계승자로 설립하고 1248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승인을 받은 베네딕도 수도원에 속해 있다.

군은 실베스트리니 수도원에서는 자체 홍삼 추출 기술을 이용한 홍삼 와인을 선보였으며, 수도원 상품개발 책임연구원(올베르트 나르디 교수)은 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화장품, 홍삼 와인, 음료 등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수도원 자체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로마 교황청 유홍식 성직자성 장관, 전춘성 진안군수



사진 왼쪽부터 올베르트 나르디 교수, 전춘성 진안군수, 자친토 쿠르친스키 신부

또한 바티칸 면세점을 방문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진안홍삼이 로마 바티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 협의 후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진안군은 국내 유일 홍삼 특구로써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진안홍삼의 새로운 도약 계기 발판을 마련했으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군수품질인증제

품, 홍삼연구소 기술이전제품, 명인/명품 제품 등 유·무형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홍삼산업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진안홍삼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인·홍삼으로 발전 및 진안군 가공업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가 28일 막을 올렸다.

무주다운 인문도시 완성한다

무주군·전북대, 11월 2일까지 인문주간 행사 개최

무주군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가 28일 막을 올렸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무주군의 덕유산국립공원 등의 명소와 적상산사고 등 인문학적 잠재력을 활용해 무주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무주군과 전북대학교는 28일 무주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3년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오광석 무주군 의회 의장, 이강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은 품격 높은 인문도시를 지향한다"며 "인문주간은 무주다운 인문도시 완성을 위한 동력"으로 그 여정과 방향이 시뮬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이 재조명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 활동 등을 통해 무주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는 28일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길 위의 인문학, 청

소년 참여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28일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석대 조법종 교수가 '무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이태영 명예교수가 '무주의 언어와 문학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중들과 만났다.

29일에는 전북 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이 '조선왕조실록을 품은 적상산사고'로 길 위의 인문학 시간을 채우고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박용수 소장과 '3D 퍼즐로 적상산사고 만들기'를 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30일 오후 2시부터 전북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이 강의하는 '조선시대 무주는 큰 고을이었어(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를 들을 수 있으며, 오후 3시부터(한풍루)는 '나도 사진작가에 참여해 볼 수 있다'.

11월 1일 오후 4시부터는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에서는 '11월의 첫 밤을 낙화놀이로 즐겨볼 수 있다'.

2일 오전 10시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김영미 연구교수가 함께 하는 '무주구천동에 남은 무주인의 숨결'이 진행되며 2시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골든벨 무주 역사의 진실을 찾아라'가 마련된다.

같은 시간 김환태문화관에서는 돌인문학회 최영표 회장과 함께 '나도 현대문학 비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축제 결과보고회 개최

제2회 쿨밸리 페스티벌 · RED FOOD FESTIVAL 결과 보고

장수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및 2024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추진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축제 성과와 부문별 우수사례, 개선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양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평가와 환류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25년도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장수군의 대표축제인 RED



FOOD FESTIVAL(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이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고,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장수군 축제만의 컬러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다.

올해는 양 축제가 전년도 보다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를 선보여 앞으로의 기획 방향성을 정립하는 해로 평가받았다. 특히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행한 'RED FOOD FESTIVAL' 개최 원리의 해를 맞아 도입한 레드푸드존, 레드푸드 쇼, 레드푸드 가족요리대전과 체험 등이 주제와 걸맞는 콘텐츠로 호평을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2025년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과 RED FOOD FESTIVAL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결과보고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축제, 미래가 기대되는 변화된 모습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장수와 신라' 학술대회 31일 개최

장수군은 오는 31일 장계면 장수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장수와 신라'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으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장수군(군수 최훈식),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윤립)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삼국시대 장수군의 역사적 위상(이도화, 한

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 △1발표 문헌으로 본 전북 동부지역 신라와 백제의 강역변천(김병남, 전북대) △2발표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 신라의 역학관계(전상하, 전주문화유산연구원) △3발표 전북동부지역 신라문화유산의 현황과 조사성파(유수빈, 군산대박물관) △4발표 장수 춘송리교분군 발굴조사 성과(유영춘, 군산박물관)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김낙중 교수(전북대,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지정 토론 △1주제 토론(김근영, 서울역사편찬원) △2주제 토론(최영주, 선문대) △3주제 토론(최경용, 미래문화유산연구원) △4주제 토론(조성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을 통해 장수지역의 신라문화에 대한 학술적 가치적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웰컴투 마이산, 별별 소원의 밤'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의 관광진흥 사업인 '마이산 3회차' 행사로 '웰컴투 마이산, 별별 소원의 밤'을 마이산 북부 명인명품관 잔디광장 및 야외무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

행된 행사는 마이산의 가을밤을 배경으로 소원과 사랑에 대한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과 별별 플라마켓, 떡거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풍성한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약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총무훈련' 실시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총무훈련을 실시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총무훈련(3년 주기)은 민·관·군이 참여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지역단위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무주경찰서와 무주소방서, 제773부대1대대, 제35보병사단 군사경찰대 특수임무대,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 등 7개 기관이 참가한다. 전시 종합상황실은 무주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마련됐다.

무주군은 30일까지 전시 전환 등 총무사태에 따른 상황 조치 연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시비축물자 관리현황 및 평시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훈련 4일 차인 31일 10시부터는 무주군 청사 무인기(드론)테러에 대비한 피해복구 훈련이 실시된다.

한편, 실제 훈련이 개최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간량현장에서 폭발음과 연막탄, 소방차 물대포 방사, 군·경 병력 정찰 등이 이뤄질 예정으로 군청 인근 일부 구간(무주군청~전간도로 일부)에서의 이동 및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혁명소협회 진안군지부 염소 시식행사 개최

한국혁명소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김낙진)가 성수면 관내 식당에서 염소 고기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염소 고기 소비 촉진과 청정 진안에서 자란 진안고원 염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행사에는 진안군 의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전북혁명소협회장, 장수, 임실 등 인근 시군 혁명소협회장, 백운농협장, 진안군청 관계자, 혁명소 협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낙진 지부장은 "개, 식육 종식법 시행에 따라 염소가 보양식으로 더욱 주목받으며 새롭게 축산업에 진입하는 농가와 염소 사육두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진안 염소의 우수성을 알리고, 염소가 보양식으로 더욱 사랑받으며 농가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려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